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의 충돌

(고후3:1~18)

1.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의 충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온 가족이 TV 앞에 둘러앉아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제일 마음에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스토리가 잘 이해되지 않지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래서 다 보기는 보는데 도대체 등장인물 중에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남의 편인가 하는 게 늘 궁금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좋은 나라이고 누라 나쁜 나라냐는 거예요.
이것만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전쟁영화를 좋아합니다, 만화영화도 거의가 다 전쟁을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마린보이, 타이거마스크, 황금박쥐, 이런 게 맨 나쁜 사람들을 무찌르는 이야기거든요.
전쟁영화처럼 총과 칼이 드러나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는 도무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릴 때 세상을 보는 눈은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하는 구분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세계관으로는 총과 칼이 보이지 않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로만 구분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볼 때 멜로드라마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로 세상을 보는 이 유치한 세계관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구분의 기준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으며, 그래서 이 단순한 구분으로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나라의 구분이 아주 세밀해졌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이민 갈 때 따지는 살기 좋은 나라, 치안상태가 좋은 나라, 자연환경이 좋은 나라, 여행 가기 좋은 나라… 등등.
좋은 나라 우리 편, 나쁜 나라 남의 편, 구분이 좀 세밀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좀 달라요, 미국도 일본도 우방입니다만, 일본은 우방이면서도 상당히 적대적인 대상입니다, 세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반면에 북한과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제 우방으로 삼기 시작했고 북한은 여전히 적대국 중에 상 적대국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나쁜 나라에 대한 기준이 없어짐으로써 세상을 이렇게 유치할 정도로 간단하게 우리 편과 남의 편으로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 이게 문제에요.

그러면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의 기준이 뭐냐?
십자가복음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고 북한이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북한이 좋은 나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공산주의처럼 신앙에 적대적인 사상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만큼 경계해야 될 것이 자본주의에요.
근데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먹혀버렸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복음만이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를 구분해주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십자가복음을 알고, 그 알고 있는 십자가복음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의 나라와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 세상에는 이 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 세상을 볼 때는 이렇게 두 나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기만 하고 생활화하지 않는 사람들도 결코 좋은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생활화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이 좋은 나라 밖은 전부 예외 없이 율법주의에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복음의 나라가 있고 율법주의의 나라가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복음의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율법주의의 나라가 나쁜 나라입니다, 멸망할 나라이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십자가사건에 근거돼 세워진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돌이라는 게 교회와 세상과의 대립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쁜 나라와 좋은 나라가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과 율법주의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들의 나라가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한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고린도교회의 소식을 듣고, 다른 문제들은 다 회개하고 개선이 되었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되어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일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적인 권한에 대한 의심의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추천서의 문제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의 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부의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나 공문서나 위임서 같은 것을 받고서야 무슨 일을 권위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파송될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을 손에 쥐고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유대의 관행을 따라 기독교가 발전해나감에 따라서 추천서제도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라든지 교사라든지 직임을 받아 파송될 때는 추천서나 천거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도바울은 그런 것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직접 주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뵈었고 물론 사도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안디옥교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파송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고린도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고린도교회가 세워진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에 의해서 추천서를 쥐고 있는 그들이 추천서가 없는 사도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대체 예루살렘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었기에 사도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추천서를 내줘서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도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왜 사도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사도권의 문제를 변호하고 있으면서 왜 율법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인가?
사도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비난은 사도바울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오직 십자가복음에 대한 사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복음에 대한 사역을 빼버리면 사도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과 십자가복음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는 것은 십자가복음을 위한 사역 자체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복음을 위한 사역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예 사도권 자체를 부인해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복음적 삶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사도바울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복음에 반대 되는 삶의 형태로서 율법주의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자면, 십자가복음으로 생활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은 나쁜 나라이고, 십자가복음으로 생활화하는 사람들의 세상은 좋은 나라고, 이외에는 없습니다, 중립인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으로 자기의 사도권에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열두 사도처럼.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인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구약의 율법은 아니지만 원리상 똑같이 율법주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 전체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세상의 두 세상으로밖에 안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의 신천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적 성향을 띠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는다'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구제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십일조 열심히 해라' 다 율법주의입니다.
십일조, 구제, 봉사, 이 모든 것들은 복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할 때는 포인트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길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구제 안 하고 충성 안 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라, 구제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제 안 하고 충성 안 하는 사람이 보이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근데 곧바로 '구제하라, 충성하라!'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구제와 충성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는 열매들이지, 목사님이 구제하라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듣고 구제하면 복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므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율법주의적 성향을 띠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누구냐 하면 사탄의 사도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도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들고 좋은 나라로부터 나쁜 나라로 파송돼서 나쁜 나라 안에다가 좋은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도고,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율법주의라는 게 말씀 드렸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원칙, 회사 경영의 7가지 원칙, 이게 다 율법이에요, 자기계발서 이방인의 율법서들입니다, 그러한 성향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적용시키는 자들이 사탄의 사도들입니다.
율법의 세계인 나쁜 나라로부터 좋은 나라인 교회 안으로 보내져서, 교회 안에 나쁜 나라를 세우도록 위임받은 자들이 바로 사탄의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이 구분이.

그러면 사도바울의 사도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고린도교인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 넣는 일을 돕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돌판에 받는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육의 심비(心碑)에 기록했다.
십자가복음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라는 나쁜 나라 안에다가 고린도교회라는 좋은 나라를 세우는 자, 이게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겨 넣는 주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사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나라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 속으로 사탄의 사도들이 파송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대로 율법주의를 끌어들입니다.

이게 사탄의 사도에요.
이 사탄의 사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의 사도 밑에 구름떼처럼 몰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적 성향이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거예요.
ㅇㅇ하면 복 준다, ㅇㅇ하면 축복이 임한다, ㅇㅇ하면…
내가 인생의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방식이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를 다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지금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결국은 두 나라의 대립으로 발전을 했고, 두 나라는 율법주의의 나라와 복음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죄를 깨닫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7, 80년 살다가 죽을 이 고깃덩어리로 된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육체가 만나는 사람과 현실에 대해서 반응하느라고 육체로 만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는 템포가 늦거나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없는 상태가 주어지면 몸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몸으로 느끼는 돈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해서 생각하고 근심하고 싫어하기 전에, 돈이 없는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처해나가야 되는 건데, 사람이 거꾸로 언제나 육체로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대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역사는 마음이 몸에 묶여있는 상태, 육의 심비라고 했습니다, 육체에 묶인 마음이니까.
그런데 육체에 묶인 마음에 십자가를 써넣음으로써 육체가 끊어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몸과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가 죄인 줄 모르니까 그 상태를 일단 놔두신 겁니다.
몸과 마음이 묶인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좋다, 건강이 좋다, 오래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것들은 몸과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다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몸과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죄악의 상태에서 이러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좋다! 너희가 몸과 마음이 묶여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좋다고 하는 돈과 건강과 모든 걸 주마!' 하신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안돼요.
안 되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되지?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 그래서 나를 보니까 몸과 마음이 묶여있더라 이거에요,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죄를 깨달으면 좋은데,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계속 속마음으로는 육체에 묶여서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죄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겉으로만 율법을 지켜서 속으로 좋아하는 돈과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 받겠다는 그런 사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세상 것들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게 율법주의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심비에 십자가복음을 써넣는 자들이 사도지, 추천서 종잇조각 들고 다니는 게 사도가 아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가 십자가밖에 전하는 것이 없는 상황인데,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한다면 그건 반드시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지 않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려요, 사도바울이 볼 때 그 가린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상태가 끝나면 영광이 사라지게 될 텐데, 그 일시적인 영광을 기억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까봐, 즉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의 그 순간만을 좋아하면서 모세를 추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늘 대면하라는 얘깁니다.
즉,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영광이 일상화된 영광으로 사는 자들이 좋은 나라 사람이고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사탄의 사도라는 얘기에요, 사탄의 사도.
이 사탄의 사도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도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힘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고,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탄의 사도들이 전하는 율법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의 심비에 새겨져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로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먼저 관계하고 하나님께 먼저 응답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세상의 삶도 살아지고, 내 마음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나라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또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 두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한국이 조국이라서 좋은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못돼먹어서 나쁜 나라도 아니고, 북한이 공산주의라서 나쁜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자본주의라서 좋은 나라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좋은 나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나라요, 사탄에 지배받는 나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교회 안에 좋은 나라의 세력이 확장되어 나쁜 나라의 그림자조차 없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